

2010. 07/08

CNP 차앤박피부와 웹진 ON(온)은 격월로 발행되는
온라인 매거진입니다.

핫클리닉 Hot Clinic

아름다워지는 여름 공식 4T만 기억하자
차앤박피부과에서 즐기는 시티바캉스

PAGE : 2



편인터뷰 Fun Interview

선장을 꿈꾸던 소년, 피부과학을 향해하다
신촌 차앤박피부과 박건수 원장

PAGE : 5



줌인 Zoom In

여름이니, 프랜들리 강남에서 피부고민 싹~
강남 차앤박피부과

PAGE : 7



해피타임 Happy Time

우리의 응원은 계속된다
차앤박 붉은 악마들의 응원열전

PAGE : 10



포스트잇 Post-it

아이돌보다, 야구선수
내 인생의 롤러와 마추처다.

PAGE : 13



칭찬릴레이 Praise Relay

나의스마일 닥터 차앤박피부과 분당서한점
가수 김원준

PAGE : 15

인터넷 웹사이트 <http://www.cnpskin.com/webzine>에 방문하시면 CNP 차앤박피부와 웹진을 보실 수 있으며, 댓글, 방문후기 작성시 행운이 따릅니다.

햇클리닉 : Hot Clinic

CNP 차안박의 피부과 시술을 좀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많은 정보 얻으시고 예뻐지세요!



“아름다워지는 여름 공식 4T만 기억하자

차안박 피부과에서 즐기는 시티바캉스(City Vacance)



Doctor Tip

여름방학 휴가철 피부과에 내원하는 고객들은 비교적 심신이 여유로운 휴가 기간을 활용해 그동안 전력 질주했던 자신에게 보답을 하고자 합니다. 주 5일 근무로 주말을 이용해서 시술을 받는 사례가 늘었지만 일상생활로 빠르게 복귀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적용되는 게 사실입니다. 특히 5일 가량 시술 자국이 남아 있는 여드름흉터 치료(D.R.T 진피재생술)나 48시간 자외선차단에 힘써야 하는 여드름 집중치료(PDT) 등은 휴가를 반납하며 치료하는 인기 시술입니다.

시술 후 달라진 자신의 모습을 마음 속에 그려보며 실속있는 시티바캉스 族이 되어 보는 건 어떨까요? 한국인의 피부 고민을 가장 잘 아는 차안박피부과에서는 아름다워지는 여름 공식으로 4T(PDT, DRT, INT, ERT)를 추천합니다. 200g도 채 되지 않는 아이폰 4G의 출시를 기다리며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것처럼 차안박피부과의 4T 역시 고객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 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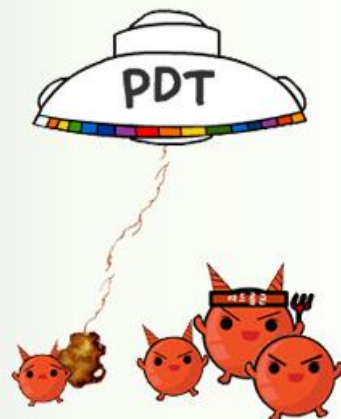
여드름 치료, 집중치료로 재발방지 **PDT**

PDT 여드름 치료술은 여드름의 주요한 원인인 여드름균과 확장된 피지선을 파괴시킴으로써 약을 먹는 것보다 염증을 효율적으로 가라앉히고, 2~3번의 치료로 10개월 이상 여드름을 덜 나게 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하지만 치료시 광흡수제를 피부에 도포하고 1~2시간 동안 암실에 있어야 하고, 치료후 48시간 이상 동안은 자외선 차단에 특별한 주의를 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비교적 장기간의 휴가를 낼 수 있는 휴가철을 이용해 치료 받는다.

PDT는 피지선을 파괴시키므로 여드름 발생을 원칙적에 가깝게 상당히 예방할 수도 있다. 여드름이 생긴 후 손으로 짜거나 할 경우 자칫 흉터와 자국이 생겨 치료가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사전에 치료할 경우 이를 예방할 수 있다. 3~5일 정도 지나면 얼굴이 붉어지고 각질이 생기지만 대략 1~2주일 정도가 지나면 치료 부위가 깨끗해진다.

포인트: 24시간 자외선 피해야하므로 집중 치료 필요해 휴가, 방학 프로그램 각광

인기키워드: 유학생, 학생방학, 직장인 환골탈태, 여드름안녕





여드름 흉터, 레전드치료_ DRT진피재생술

여드름흉터는 주위의 정상피부보다 진피층까지 깊이 패여 피부가 매끄럽지 못한 상태로, 한번 생긴 흉터는 저절로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수술적요법이 필요하다.

기존의 여드름흉터 수술은 1회 시술로 1개월 정도의 재생기간을 필요했기 때문에 연간 계획을 세워야 정복할 수 있는 치료였다. 무심코 손으로 짜거나 부주의한 결과치고는 그 대가가 너무 컸던 것이다. 여드름흉터의 레전드치료로 유명한 차앤박 피부과의 DRT 진피 재생술은 진피층에 핀홀을 만들어 피부의 재생을 유도하면서도 기존 레이저와 달리 탄화 되지 않기 때문에 주변 조직의 열손상을 최소화시켜 부작용을 줄였다. 초반 3-4일에 딱지, 붓기 등이 생기지만 7일 이후에는 시술 자국이 거의 사라지고 20일 전후로는 활발한 진피 재생으로 흉터가 개선된다. DRT진피 재생술을 경우 여름방학을 이용해 여드름흉터를 치료하고자 하는 유학생들이나, 휴가를 맞은 직장인들 사이에서 맞춤형 치료로 특히 인기가 높다.

포인트: 여드름 흉터 치료 기간 단축의 신기원 (차앤박피부과 독자치료)

인기키워드: 면접, 자선감증진, 방학치료, 휴가치료

모공리프팅, 콜라겐증진_ 인트라셀 INT

새로운 콜라겐의 생성을 극대화하도록 돕는 것으로, 증가된 새로운 콜라겐이 피부를 빈틈없이 채워 모공을 조여 주는 효과에 탁월하다. 치료원리는 인트라셀의 미세바늘이 피부에 들어간 후, 피부 진피층 부위에 순간적으로 고주파(RF)를 직접 방사함으로써 노화되고 손상된 콜라겐을 파괴하고 새로운 콜라겐을 재생시키는 것이다.

인트라셀의 장점은 표피 화상이나 통증의 우려 없이 핀포인트 RF 에너지의 세밀한 컨트롤이 가능하다는 데 있다. 즉 피부과 전문의가 환자의 모공 정도나 주름의 깊이에 따라 바늘의 깊이와 에너지 크기를 조절할 수 있다. 시술 후 콜라겐이 촘촘하게 재배치되는 과정 중에서 피부탄력이 증대되고 모공을 조이는 효과를 얻게 된다.

포인트: 써마지의 고주파 + 프락셀의 장점 + α 알파라이징

인기키워드: 모공리프팅, 피부탄력 증대, 모공축소, 콜라겐을 촘촘하게 한다





칙칙피부탈출로 투명 피부연출 _ ERT레이저필링

ERT레이저필링은 피부표피층의 묵은 각질을 레이저로 필링하고 이 과정에서 효과적인 재생을 촉진시켜 피부톤을 밝게 하고 피부결은 실크처럼 매끄럽게 해준다.

여드름 흔적으로 인해 거뭇하게 색소 침착이 된 부위를 개선할 뿐만 아니라 피부결이 좋아지는 효과를 같이 볼 수 있다. 노화로 시작되는 20대 중반, 종합적인 이유때문에 칙칙해진 피부가 고민인 분들에게 머스트해브 아이템으로 주목받고 있다. 무엇보다 레이저를 이용해 피부 표피층에 미세한 구멍을 촘촘하게 뚫어 평상시 사용하는 미백이나 재생 화장품들의 피부 침투력을 높여 유효성분의 흡수를 도와준다. ERT레이저필링은 마취 필요 없이 짧은 시간 내에 시술이 가능하다.

포인트: 역동적인 표피층을 공략으로 자국치료 탁월

Everyday new face (차앤박 독자치료)

인기키워드: 칙칙피부탈출, 여드름자국, 브라이팅효과, 묵은각질제거, 면접



편인터뷰 : Fun Interview

CNP 차앎박피부과의 인연이 있는 좋은 사람들을 공간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공간에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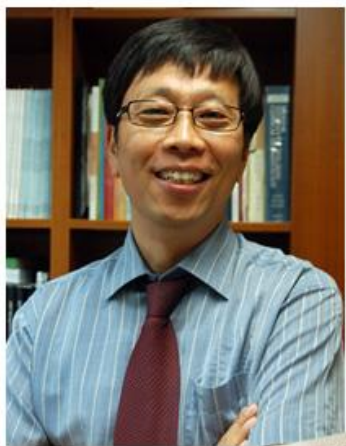


“선장을 꿈꾸던 소년, 피부과학을 향해하다”

수상스포츠 도전기는 계속된다 신촌점 박건수 원장

어린시절 연평도의 기억때문일까. 신촌점 박건수 원장의 소년 시절 꿈은 선장이었다고 한다. 철부지 시절의 작은 꿈이었다고 속스러운듯 말을 건네 왔지만 자유로움을 꿈꾸는 그 시절 소년의 모습은 인터뷰 내내 발견할 수 있었다.

"90년대 초반 필리핀으로 첫 해외여행을 가게 됐어요. 관광객이 되어 아름다운 대자연과 마주하고 있는데 조금은 생경한 장면을 보게 되거죠. 외국인들은 하나같이 바다에 뛰어들어 수상스포츠를 즐기는데 한국 관광객들은 바다를 그저 구경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바다를 즐기는 법을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든게요"



박건수 원장

코발트빛 바다, 달빛이 부서지는 바다

레지던트 4년차때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면서 수상스포츠에 본격적으로 입문하게 되었다. 청평의 '바하마'라는 수상스키클럽의 일원이 되어 매주 열심히 다니게 되었는데 중급단계쯤 되니 슬슬 지루해지기 시작했다고. 봄이 지나면서 스킨스쿠버에 도전장을 냈다. 먼저 잠실수영장에 5m 짜리 깊은 풀에서 8주동안 교육을 받고 제주도에 오픈워터를 경험했다. 20kg에 육박한 장비를 몸에 걸치고 바다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힘들보다 바다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신비로움이 더욱 매력되었던 시절이다.

"사이판에서의 자연해발동굴인 그루터는 잊을 수 없는 다이빙 포인트입니다. 너무 유명한 곳인데 동굴속에서 빛을 향해 나오다 연결된 통로를 지나면 코발트 빛 바다와 마주하게 됩니다. 또한 라이트다이빙에서는 파도에 부서지는 달빛에 매료되기도 하지요."

캐주얼한 수상스키는 자주 즐겨, 요트는 도전중

그런데 아주 마니아가 되지 않으면 오랫동안 만끽하기는 힘든 게 스킨스쿠버였다고 한다. 윈드서핑은 가을에 배웠다. 판(board) 위에 세워진 돛에 바람 받으며 파도를 타는 것인데 한강에서 배우게 되었다고 이렇게 물이 좋아 하나씩 도전하다 보니 수상스포츠의 마니아가 되어 있었다고 한다.

무엇보다 의사라는 직업자체가 병원이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업무를 보기 때문에 트인 공간에서 자연을 마주볼 수 있는 기쁨이 컸던 것 같다고 윈드서핑의 경우 바람을 이용해서 가는 것이긴 하지만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 또한 큰 매력이었다.

“수상스키는 여전히 캐주얼하게 즐기는 수상스포츠인 거 같아요. 직원들과도 가끔 즐기기도 합니다. 마지막 도전하고 싶은 것은 '요트'예요. 뉴스를 통해 요트로 세계여행을 한다거나 특정지역의 요트랠리를 접하면 꼭 도전해 봐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단순히 꿈으로 끝나더라도 대자연과 마주하고 싶은 희망만큼은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수상스포츠에 대한 박원장의 도전은 현재진행형이다. 무엇보다 선장이 되지 못했지만 피부과학이라는 넓고도 깊은 바다에서 항해는 계속되고 있다.





줌인 : Zoom In

CNP 차안박 피부과의 지점을 소개하는 코너로 보이지 않는 2%까지 지점의 면면을 시원하게 소개해 드립니다.



“여름이니까, 프랜들리 강남에서 피부고민 싹~~



시티바캉스의 본좌 강남 차안박피부과

트렌드세터들에게 방학과 휴가는 기회다. 많은 이들이 꿈꾸는 휴가로 해외에서의 단란한 리프레시를 꿈꾼다면 트렌드세터들은 살짝 그 마음을 접고 실제 자신을 위한 업그레이드 작전을 수행한다. 이름하여 도심 속에서 바캉스를 즐기는 시티바캉스 여름이니까 그리고 강남이니까 그들이 문을 두드리 는 곳은 바로 강남 차안박피부과다.

행복한 피부휴식

시즌레스, 피부과 치료에 발상을 전환하라 여드름흉터 치료로 복적

7, 8월 차안박피부과에서 바캉스를 즐기는 고객들 중 가장 드라마틱한 효과를 보는 것은 바로 여드름 흉터다. 난공불락과도 같던 여드름 흉터 치료는 몇가지 유의사항이 있었다. 장기간의 치료기간이 소요되면 재생기간도 오래 걸려 선불리 접근할 수 없는 시술이면서도 거울시술이라는 것. 하지만 여드름흉터 치료의 선두주자인 차안박피부과의 기술력으로 DRT진피재생술이라는 가장 진화된 프로그램을 선보이면서 상황은 바뀌었다. 강남점에 방학휴가철이 되면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듯 비장하기까지 한 고객들의 여드름흉터 치료에 대한 니즈는 해가 거듭될 수록 높아지고 있다. 심재홍 원장은 “여드름 흉터 치료를 방학, 휴가 기간을 통해 치료하려는 이유는 대인활동에는 무리가 없지만 조금 티나는 기간이 5~7일 정도는 가기 때문이다.” 고 전하면서 “자외선 노출문제를 걱정하는데 차단제를 꼼꼼하게 바르면 대부분 해결되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여유있게 치료받을 수 있는 방학휴가철을 계절과 관계없이 이용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대세는 일상생활에 지장없이, 티나지 않게 치료하자

강남점을 내원하는 20-30대 학생과 직장인인데 주요 피부고민은 끊임없이 올라오는 여드름과 그로 인한 여드름 자국들 때문이에요. 이 고객층들의 바램은 빠른 치료효과를 원하면서도 티나지 않게 치료받는 것입니다." 김진형 원장은 고객들의 요구는 더욱 세밀화되고 빈틈없어 진다고 한다. 요약하자면 효과가 빠르고 티는 나지 않으면서 종합적인 치료가 가능해야 한다는 것.

베타필링 + 벤티레이저치료 + 토닝레이저치료 즉 자국 3종 치료는 강남점에서 가장 인기 있는 치료 프로그램이다. 효과가 빠르고, 여드름 뿐 아니라 자국을 같이 치료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일상활동에 부담을 주지 않기 때문에 많이 시술한다. 염증성 여드름과 붉은 자국이 있는 이들에게 적극 추천할만한 치료이다. 어떻게 보면 너무 까다롭고 욕심이 많다 싶은데 고객들의 스타일을 분석하다 보면 더욱 연구하며 집중할 수 있다. 그런 점이 진료실에서 얻는 큰 소득이라고.

반갑습니다. 강남점의 씬터 같은 그녀들

고등학교때 여드름 치료로 병원에 찾아 왔던 분이 대학때도 방문하고, 면접을 앞두고, 그리고 웨딩프로그램으로 까지 연결되는 고객이 있었습니다. 서로가 따로 말은 안하더라도 너무 반갑고, 고마운 관계인 것 같습니다." 오픈 멤버인 한경희 팀장은 장기간 병원을 잊지 않고 찾아오는 고객들을 대할때면 더욱 책임감을 느끼게 된다고 한다. 또한 우리 병원의 치료가 제대로구나 라는 확신은 고객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다. 여드름 짜는 시간이 짧아질때면 미소가 가득하게 된다는 게 한 팀장의 설명이다. 용인숙 수간호사는 스스로 사람복이 많다고 한다. 이심전심이 가능한 한경희 팀장을 비롯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편현주 메디컬코디네이터를 보고 하는 말이다.

실제 강남점의 직원 중 리더로 고객들을 만나지만 수평적인 관계를 몸소 실천하고 있다.

"차안박피부과에 와서 서비스를 배우게 됐습니다. 종합병원에서와의 온도차가 크더군요. 고객을 환자로만 보는 게 아니라 고객이 되는 순간 서비스의 수준을 달라졌습니다. 목소리, 전화받는 인사말, 고객상담 스타일까지 하나하나 체크해야 하는 게 참 많았고 그렇게 몇 년을 지나다 보니 우리의 미소를 기억해주는 고객이 있는 것만으로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고 용인숙 수간호사는 잔잔한 미소를 지었다.

편현주 메디컬코디네이터는 안정된 직장생활을 하다가 MC라는 새로운 직종에 입문하면서 다시 한번 날아오르고 있다. 고객을 응대하는 과정 중에 서투른 부분이 생기면 경험이 많은 한경희 팀장과 용인숙 수간호사에게 SOS를 청한다. 자기 일처럼 챙겨주는 두 매니저 사이에서 고객들의 씬터가 되기 위한 나무로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것이다. 함께 미소 짓는 모습이 강남점의 피부고민 씬터로 손색이 없다.

앞으로 10년이 되든 20년이 되든 아니면 지금 첫 발걸음으로 강남점의 문을 열고 들어오는 고객 한분 한분을 만족시켜드릴 수 있도록 연구 개발 노력하겠다는 강남점. 고객을 향한 진정성이 도심 속에서도 꽃피우는 듯 하다. 의심할 여지없이 차안박피부와 강남점은 시티비캉스의 본좌다.

씬터같은 그녀들







해피타임 : Happy Time

CNP 차안박 피부과의 기분 좋은 소식 및 전 지점이 참여하는 캠페인, 제휴, 온오프라인 등의 현장스케치를 담았습니다.



“

우리의 응원은 계속된다

차안박 붉은 악마들의 응원열전

2010년 6월, 우리 모두를 열광케 했던 남아공월드컵.

23명의 태극전사와 함께 붉은악마의 함성으로 열기를 더한 월드컵이었다. 지구 저편에 자리한 남아공이 이렇게 가깝게 느껴질 수 있었던 것도 붉은악마의 응원때문이 아니었을까.

차안박 피부과의 감쪽한 붉은 악마들의 응원열전도 이에 뒤지지 않았다. 우리를 울고 웃게 만들었던 남아공 월드컵의 각 지점별 응원열전을 스케치했다.

남아공 월드컵 8강 '좌절' 아닌 16강 '달성'

지난 우루과이와의 8강행 티켓을 건 결전을 쏟아지는 빗속에서 붉은 악마들은 선수들과 함께 달리고 울고 웃었다.

2대 1의 아쉬운 패배 앞에 응원 열기는 뜨거운 눈물이 돼 흘러내렸지만 붉은악마들은 태극전사들에게 격려의 박수를 아끼지 않았다.

밀고 당기는 접전 끝에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리자 곳곳에서 눈물과 탄식이 터져 나왔다. 결코 우리는 진 게 아니다. 원정 16강이라는 대업도 이뤘고, 그 만큼 잘 싸워줬다. 우리는 행복했다.



차앤박 붉은악마들의 '아~ 대한민국~'

이번 월드컵열전에 단연 돋보였던 지점은 **명동점!**

정현진 실장님의 의상 리폼과, 이은비 코디네이터의 소품리폼으로 명동CNP만의 독특한 응원 의상으로 변신하였다.

의상리폼을 위한 진지한 상담까지 이루어질 정도로 열기가 대단했다.

원정 첫 16강 진출이라는 쾌거 속에 다시 한번 대한민국을 외출 수 있었다.



수원점 또한 아름다운 미모의 붉은 악마의 탄생으로 시선을 사로 잡았다. 삼삼오오 모여든 월드컵 경기장에서의 열기까지 전달해주는 후기를 남겼다. 양중맞은 페이스페인팅은 덤이다.

삼성점은 원내에서 붉은 악마 뿔을 활용하여 월드컵 분위기를 센스있게 전달했다. 유니폼과 절묘하게 어울려 재미있는 시간이었다는 소식을 전해주었다.

부천점은 붉은 악마티로 월드컵 분위기를 알렸다. 원장님도 함께 참여해 월드컵의 축제를 만끽했다. 차앤박피부과만의 응원열전 속에 승부는 이미 중요한 게 아니었다는 후문이다.



평촌점은 모든 국민들의 열정이 담겼던 첫 원정 16강에 대한 준비가 남달랐다. 이청룡 선수의 동점골 후 순간 시청률이 77%!! 너무 잘해 준 경기였기에 더 아쉬운 패배라고. 하지만 다시 한번 열광할 수 있게 해준 태극전사들에 대한 고마운 마음도 전했다. 양재본원에서 월드컵 관람은 원내에서 이뤄졌다.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맥주파티를 파격적으로 진행하면서 태극전사에 힘을 실었다. 결과는 20(그리스전) 태극전사의 승전보만큼이나 단합되는 팀웍을 만들어냈다고.



이제 남아공월드컵을 향한 우리들의 관심은 역사의 한 페이지로 장식되었지만 그 열정만은 오랜 온기로 남아 한동안 우리를 행복하게 해 줄 것이다.

태극전사 화이팅 그리고 열정 한스폰 더한 차앤박 피부과 화이팅이다.



포스트잇 : Post it

CNP 차앤티피부와 가족의 추억에 노랑, 파랑, 빨강의
포스트잇을 붙여 모두의 추억으로 엮어가는 코너입니다.
hasowsow@cnpnpskin.com



“아이돌보다 야구선수, 내 인생의 홈런과 마주치다

양재본원 김지현간호사



김지현 간호사

아이돌이 대세라고 하지만 나에게는 야구선수가 우선이다. 말하자면 꽃보다 남자가 아니라 아이돌보다 야구선수. 지난 월드컵때 너나할 것 없이 붉은악마로 변신하는데도 여전히 나는 야구장으로 향했다. 연차를 내는 날도 내가 응원하는 팀의 경기가 있는 날 위주로 하고, 경기가 없으면 내겐 연차도 없다. 누가봐도 야구마니아인데 사실 이렇게 야구의 매력을 알게 된지는 얼마 되지 않았다. 친구따라 강남간다고 2009 시즌에 친구 손에 이끌려 찾아간 야구장. 그곳은 내게 신천지였다.

텔레비전 스포츠뉴스를 통해 간간히 접하던 야구는 그저 뉴스의 한 종류였을 뿐이었는데 눈 앞에 펼쳐진 그라운드와 선수들의 모습, 그리고 그들을 향한 응원과 함성소리가 내 가슴을 쿵쿵쿵쿵 뛰게 했다. 그날 이후부터였다. 나의 휴일이 야구장행이 되어 버리게 말이다. 그리고 내게는 야구선수 친구도 생겼다. 이름하여 두산의 고창성 선수.

평상시 보는 고창성 선수는 그저 착한 동생인데 야구장에서의 고창성은 '선수로서 많은 팬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든직한 스타다. 어느새 팬이 되어' 고창성을 열광하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최강두산을 응원하면서 모든 선수들의 일거수일투족이 나의 머리 속에 있다. 지든 이기든 나의 챔피언은 최강두산.

조금 늦은 나이에 야구를 알게 됐지만 매 경기마다 그라운드 안에서 펼쳐지는 히로애락 앞에서 인생을 배우고 있다. 그야말로 내 인생의 홈런포인 셈이다. 조금 속상한 일이 있더라도 내일의 태양은 다시 떠오른다는 생각으로 툭툭 털어 버릴 수 있고, 팬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최강두산을 응원하게 된다.



김지현 간호사가 말하는 야구사랑 에티켓

열정은 10년차 야구팬이지만 이제 갓 새내기 티를 벗었다. 초보로서 야구를 제대로 즐길 수 있었던 비결을 소개한다.

야구 기본은 알고 가라 최근엔 야구에 대해 관심을 보이는 여성 팬들도 많아지고 있는 추세다. 처음엔 야구장의 함성과 응원에 흥미를 느꼈다가 야구 규칙을 제대로 알면 더 재미있게 경기를 관람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자신의 응원하는 구단의 홈페이지 정도는 훑어보고 가는게 좋다.

응원에 살고, 응원에 죽고 야구장하면 역시 뭐니뭐니 해도 응원이다. 각 팀마다 특색있는 응원을 진행하는데 잘 모른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막대 풍선을 양 손에 들고 옆사람이 하는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 더 크게 열심히 하다 보면 그 속에 동화되어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야구선수를 기억하라 아이돌보다 야구선수. 나의 원칙이다. 좋아하는 선수를 정하고 야구를 즐기면서 좋아하는 선수가 없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들이 이뤄내는 기록들을 체크하는 것도 그 재미다. 옥석을 가리듯 지지하고 있는 선수가 어느 순간 대스타로 성장하는 모습을 목격할 수 있다.



칭찬릴레이 : Praise Relay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합니다. CNP 차안박피부과의
보석 같은 여러분을 추천하고 칭찬하는 공간입니다.



나의 스마일 닥터 차안박피부와 분당서현점

가수 김원준

"분당서현점이에요? 제가 제 집 다니듯 편안하게 다니는 곳이에요. 정말 피부과주치이라고 할만하죠."

담백하기까지한 가수 김원준의 밝은 목소리가 수화기 저편에서 들려왔다. 90년대 현재의 아이돌이 부럽지 않을 만큼 많은 팬들을 거느렸던 김원준씨.

M4 활동에 여념이 없지만 하반기에는 <라디오스타> 앵콜공연을 비롯해 새로운 뮤지컬 도전때문에 더욱 바빠질 것이라고 한다. 그가 즐겨찾는다는 분당서현점과의 인연은 어떻게 시작됐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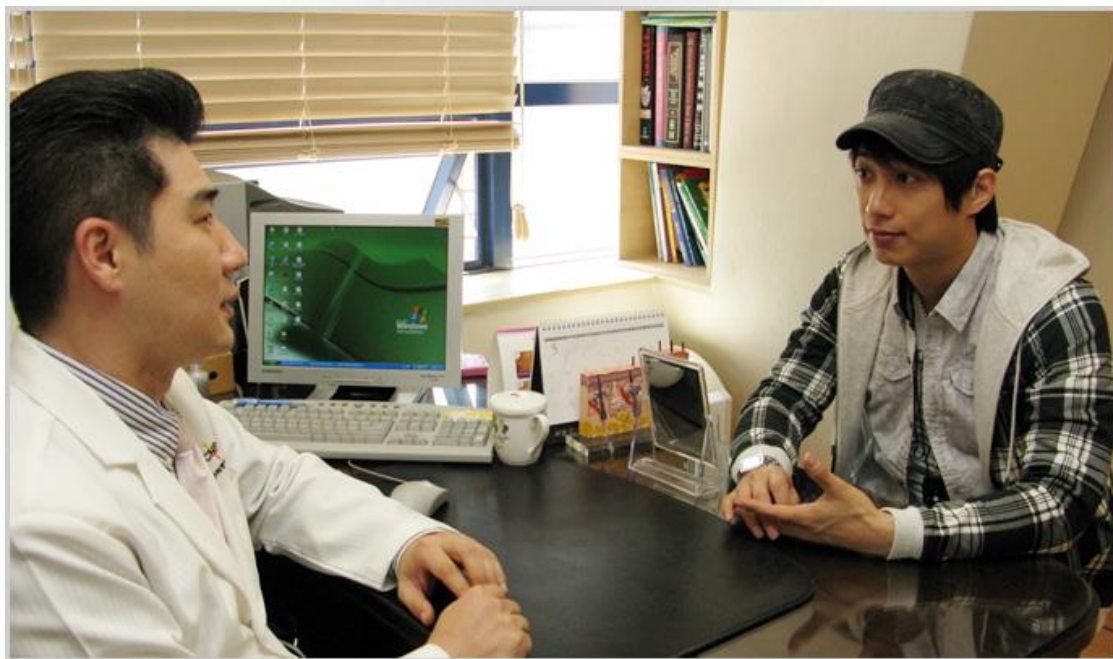
"홍식이형이라고 말하는 게 더 편한대요. 초등학교 선배고 친형 같은 형이에요. 초등학교 다닐때부터 저보다는 또래와 어울리기를 즐겼던 친형보다 저를 더 살뜰하게 챙겨줬던 형이죠. 항상 사람좋은 미소를 지으며 '뭐 먹고 싶은지' 물어보고 사줬습니다. 이제는 우리 가족의 피부를 살뜰히 챙겨주고 있습니다."

인연의 깊이가 어린시절의 추억까지 맞닿을 정도로 오랜 기간 함께한 사이라고 귀땀했다. 무엇보다 분당서현점은 '캐주얼함'을 큰 장점으로 꼽았다.

캐주얼하다는 사전적인 뜻을 보면 '차림새가 격식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부드러우며 가볍다'라는 것인데 여기에서 그는 캐주얼함에서의 가볍다는 뜻을 편안함으로 바꿔 설명했다.

"병원입장에서는 아마 모든 고객에게 레드카펫을 깔아 드리고 싶을 거예요! 하지만 화려한 인테리어나 규모가 '레드카펫'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잉된 친절함보다는 담백한 편안함이 고객에게 더욱 신뢰를 주는 것 같습니다. 서현점은 제게 그런 곳입니다. 차안박피부과만의 편안한 컨셉을 살리면서 사람향기가 나고 내 피부고민을 허심탄회하게 친구에게 말하듯 이야기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김홍식 원장은 "김원준씨는 자기관리가 매우 철저한 분인것 같습니다. 워낙 타고난 피부가 맑고 투명하기도 하지만 담배는 전혀 하지 않고, 술도 그렇게 즐겨하지 않은편입니다. 최근 왕성한 활동을 다시 하면서 뽀루지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적절한 치료를 받은 후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회복속도가 빠른편입니다. 이제는 나이도 있어서 탄력관리에만 조금 더 신경 써준다면 지금의 피부상태를 잘 유지할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라고 조언했다.





가수 김원준의
차안박피부와
"스마일" 닥터

가수 김원준의
차안박피부와 서현점은
'스마일 닥터'다.